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교육청, 스승의 날 기념 교육현장 방문 격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2일 제44회 스승의날(5월 15일)을 맞아 순천 지역 학교를 방문해 ‘감사의 일일카페’를 운영하고, 교육현장의 교직원 선생님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순천선희학교를 찾아 교직원 한 분 한 분에게 카네이션을 건네며, “늘 곁에서 아이들을 지켜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감사의 일일카페’가 마련된 순천선희학교 다온카페에서는 교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스승의날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이날 카페에는 김대중 교육감과 순천교육지원청 허동균 교육장이 일일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교직원들에게 음료를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작은 클래식 음악회도 마련돼, 교직원들에게

잔잔한 위로와 감동을 선사했다.

이후에는 순천 동산초등학교를 찾아 제44회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 교육감은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한 교원에게 장관 및 교육감 표창장을 수여하며 그 공로를 치하했다.

또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공생,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할 전남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표창장을 받은 한 교사는 “교육감 표창을 받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아이들의 웃음을 생각하며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남교육의 대전환”이라며 “지역 중심의 공생



스승의날을 앞두고 순천선희학교를 찾은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교직원들에게 카피와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있다.

교육을 이끄는 중심에 선생님들이 계시다.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스승의 날 유공교

원 정부포상 대상자(훈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에게 기관(학교)별 자체 전수식을 통해 공적을 치하할 예정이다.

/염선호 기자



보성군장애인복지관, 따뜻한 마음 가득했던 5월 8일

장애인 어르신들의 특별한 어버이날

보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김승진)은 어버이날을 맞아 200여 명의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하고 따뜻한 행사를 진행하여 어르신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난 하루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는데 행사 시작과 함께 직원들과 보성군예비군 지역대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동심풍선아트봉사단에서 아름다운 풍선 장식으로 복지관 행사장을 화사하게 꾸며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맛있는 간식 나눔이 진행되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포토존이 마련되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축식에서 찍

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선물로 제공되어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행사 내내 고소한 팝콘이 제공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후원이 더해져 더욱 의미를 더했다. 보성 백연골발효차 문정자 대표는 어르신들을 위한 향긋한 녹차를 후원해주었고, 박왕재 후원자는 무려 200개의 맛있는 기장떡을 후원하여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보성군장애인복지관 김승진 관장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께 기쁨과 감사를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따뜻한 후원과 봉사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보성군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장애인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보성/김윤기 기자

장성군 고향사랑기부제 1호 최고액 기부자 탄생

복일면 출신 변화순 ㈜해천케미칼 대표 2000만 원 기부

장성군에 개인 고향사랑기부 한도 최고액인 2000만 원 기부자가 탄생했다. 군은 최근 변화순 ㈜해천케미칼 대표·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이 최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장성군 복일면 출신인 변화순 회장은 작은 회사의 경리로 시작해 ㈜해천케미칼 대표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24년째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현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을 맡아 여성경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활동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사회 기여를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변 회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 장성의 성장에 일조하게 되어 뜻깊다”면서 “지역에 힘을 보태는 기부의 손길이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 인사를 전한 김한중 장성군수는 “기탁하신 기부금은 장성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이내로 기



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담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부터 기부 한도가 중

전 500만 원에서 상향됐다.

장성/황해연 기자

“해외탐방 통해 많은 것 배우고 미래역량 돼 주세요”

강진군 전액 지원 강진중 2학년 해외역사문화탐방 출발

넉넉한 햇살이 가득했던 12일, 강진중학교 2학년 학생 81명이 일본 해외역사문화탐방을 떠나기 전, 강진중학교 도서관에서 안전교육이 시행된 가운데 강진원 강진군수가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진중은 13일부터 2025 오사카 박람회 견학하고 윤봉길 의사 수감 형무소 터가 있는 오사카성, 운동주 시비가 있는 교토 도지샤 대학 등 역사 현장과 더불어 일본 오사카 도톤보리 등을 방문하는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이웃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예정이다.

강진군의 특수시책인 해외 역사문화탐

방지원사업은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해외 역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국제 감각을 키우고, 넓은 시야를 갖도록 돕는다. 학생들은 탐방을 통해 대한민국과 연관된 역사적 장소를 방문하고, 현지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글로벌 마인드를 높인다.

강진군의 해외 역사문화탐방 사업은 2018년부터 전남 시군 최초로 시작돼 현재까지 지속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강진군이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교육 효과가 높게 평가되면서 2024년부터 전액 군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액을 기



존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증액, 학부도 부담은 낮추고 탐방의 질은 더욱 향상시켰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해외 역사문화탐방은 지역 청소년들에게 더 넓은 세

계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뜻 깊은 사업”이라며 “학생들이 탐방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진/손경설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위기임산부 돌잔치·성장앨범·물품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12일(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엔젤하우스에 방문하여 성장앨범 제작을 지원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하였다.

엔젤하우스(광주 남구 소재)는 광주광역시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으로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와 출생아들에게 편한 숙

식과 정서·문화적 서비스를 통해 자립 동기를 부여하고, 홀로서기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공단은 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외에도 익산 기쁨의 하우스, 목포 성모의 집, 제주 애서원 등 관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대상으로 돌잔치 및 성장앨범 지원과 철분제, 분유 등 산모와 아동을 위한 물품을 후원하고 있다.

/이승원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